

美 실적시즌 달군 AI… 증권사 투자정보 경쟁 뜨거워진다

AI 활용 어닝콜 서비스 진화

토스, 국내 기업으로 서비스 확대 카카오페이, 듀얼 화면 PIP 기능 도입 미래에셋·iM, AI 기반 번역·요약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면 개인투자자 황세나씨(42)는 새벽 잠을 포기한다. 예전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어닝콜을 직접 듣거나 다음 날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 투자 커뮤니티의 요약 기사를 기다려야 했다. 최근에는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발언을 번역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긴 어닝콜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스피 조정과 원·달러 환율 하락을 계기로 미국 증시로 다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AI 어닝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AI를 활용한 투자 정보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1~21일 국내 투자



AI가 미국 기업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번역·요약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8억7876만달러(약 432600억원)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서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는 투자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도 AI를 활용해 경영진 발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물론, 발표 내용과 주가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용자 수에서도 나타

난다. 토스증권은 지난 4월 국내 기업으로 AI 어닝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60만명을 확보했다. 국내 어닝콜을 통해 처음 서비스를 이용한 신규 이용자만 20만명에 달했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에는 19만명이 접속했다. 2분기에는 서비스대상을 70여개 국내 주요 기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토스증권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왕현민 프로덕트오너(PO)는 AI 어닝콜의 다

음 단계로 ‘정보의 맥락’을 제시했다. 왕 PO는 “우선은 정보 접근성을 더 깊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실적 발표를 번역·요약해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가 내가 보유한 종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공시·실적이 쏟아져도 이걸 일일이 찾아 읽고 내 투자와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 경쟁도 단순 번역을 넘어 투자 경험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실적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화면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PIP 기능과 발표 내용에 맞춰 주가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요 해외 기업의 어닝콜을 AI가 번역·요약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주가 급등락 원인까지 함께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iM증권 역시 미국 상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AI가 어닝콜 핵심 내용과 주가 변동 요인을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증권사들의 AI 경쟁에 대해 “증권사들의 AI 경쟁이

결국 투자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혜택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승부처는 AI 기능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가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신뢰하고 계속 쓰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 PO는 “AI가 정리한 정보를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AI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개인의 투자 목적과 상황을 대신 판단해 주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는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내용을 만들 수 있어 토스증권도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원문 출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보의 원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보 리터러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상반기 M&A 75건… 주식매수청구대금 급감

예탁원, 지난해보다 2.6% 감소

주주 지급 주식매수청구대금 54억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상장사는 75개사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M&A에 반대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년 새 80% 넘게 줄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7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개사보다 2개사(2.6%) 감소한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2개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3개사로 70.7%를 차지해 유가증권시장의 두 배를 웃돌았다.

M&A 사유별로는 합병을 추진한 상장사가 6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M&A 추진 상장사의 82.7%에 해당한다. 나머지

는 영업 양수·양도와 주식교환·이전 등을 추진한 회사였다.

M&A 추진 상장사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가 M&A를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316억원과 비교하면 262억원(82.9%) 줄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상장사 수도 지난해 상반기 41개사에서 올해 상반기 33개사로 8개사(19.5%)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개사가 총 1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개사가 6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회사 수는 85.7% 늘었지만 지급액은 78.3% 감소했다.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개별 M&A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매수청구 규모는 줄어든 셈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개사가 주식매수청구대금 3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 34개사가 247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회사 수는 41.2%, 지급액은 84.2% 각각 감소했다.

전체 주식매수청구대금 가운데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지급액이 72.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한 감소 폭은 유가증권시장보다 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양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이사회에서 결의했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업계 최고’

DC·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강세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경쟁에서 증권업계 최고 성과를 거뒀다. 개인형퇴직연금(IRP) 10년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장기 자산운용 경쟁력을 나타냈다.

2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26년 2분기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적립금 1조원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5년 수익률이 각각 연 12.57%, 연 11.83%를 기록했다.

특히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0년

수익률은 연 10.35%를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DC 상품의 10년 수익률도 연 8.82%를 기록하며 장기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

단기 성과도 두드러졌다. DC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56.65%, IRP는 47.80%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장기 투자 중심의 운용 전략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체계가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상품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약 900개의 ETF와 다양한 채권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업계 유일의 퇴직연금 전용 ELS를 운영 중이다. 적립식 ETF 자동투자 서비스와 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통해 장기 분산

투자와 자산배분도 지원하고 있다.

연금자산관리센터와 VIP연금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연금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재경 NH투자증권 채널솔루션본부 부사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인 만큼 안정적인 성과와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평가 상위 10%와 증권업 우수사업자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증권사이기도 하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AI·반도체 레버리지 중심 매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코스피 조정으로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계액은 28억7871만달러(약 4조 2712억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6억3296만달러(약 9391억원)의 약 4.5배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2월 이후 최대 순매수 기록이다.

이는 지난 4월 순매도로 돌아선 이후 5월에는 9억3977만달러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난달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는 매수 규모를 크게 늘리며 미국 증시

로 자금을 다시 쏟아붓고 있다.

서학개미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배경으로는 코스피 조정과 환율 진정이 꼽힌다. 지난달 ‘뚝의 9000피’를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달 6500선까지 추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1500원을 상회하던 원·달러 환율도 1470~148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더욱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증시에서도 AI와 반도체에 집중됐다. 지난주(7월 15일~21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 팔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스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17억4038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S 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5억 9922만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메타(6471만달러), 아이온큐(5252만달러), 스페이스X(5762만달러) 등 AI·미래기술 관련 종목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이어갔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美 지수 ETF 순자산 30조 돌파

국내 시장 점유율 50% 웃돌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 합계는 30조9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 전체 순자산의 50%를 웃도는 규모다.

개인 투자자 자금도 두 상품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두 ETF의 개인 순매수액은 총 5조3373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상장 미국 대표지수 ETF 전체 개인 순매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두 상품은 국내 상장 S&P500 및 나스닥100 추종 ETF 가운데 가장 큰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ETF 순자산 규모에서도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허정윤 기자